

03 2027학년도 학과·계열

첨단학과 — 이름만 새 곳과 진짜 새 곳

무엇을 보고 가르나

- ◆ 이 자료는 **무료**입니다.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.
- ◆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. **예측하지 않습니다.**

CONTENTS

01	숫자부터	2
02	무엇이 다른가	3
03	가르는 법	4
04	그래서 무엇을	5
05	자주 묻는 것	6

무엇이 들어 있나

- ◆ 이름에 반도체·AI·데이터가 든 자리 **493줄** · **5,663명** · **37개 대학**
- ◆ **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** — 이름만 바꾼 곳 · 안에서 나뉜 곳 · 새로 만든 곳
- ◆ **가르는 법** 넷 — 편제표 · 언제 생겼나 · 교원 수 · 기업 협약
- ◆ 「유망하다」는 말보다 **편제표 한 시간**이 정확한 까닭

01 · 숫자부터

이름에 든 낱말로는 493줄입니다

「반도체·AI 학과가 유망하다던데요.」

학부모 조사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겠다고 답한 항목이 첨단학과 모집 규모였습니다. 그런데 「첨단」이라는 이름을 단 학과가 다 같은 곳은 아닙니다. 이름만 바꾼 곳과 실제로 새로 만든 곳이 섞여 있습니다.

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학과 이름에 반도체·인공지능·AI·데이터·첨단·배터리·바이오 같은 낱말이 든 자리를 세었습니다.

무엇	얼마나
이름에 그 낱말이 든 줄	493줄
모집 인원	5,663명
그런 학과를 둔 대학	37곳
경쟁률 중앙값	9.6:1
수능최저를 거는 비율	45%

37개 대학, 5,663명입니다. 작지 않습니다. 그런데 이 숫자를 「첨단학과가 그만큼 늘었다」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.

저희가 센 것은 이름에 낱말이 든 것입니다. 이름을 바꾼 것과 새로 만든 것을 가르지 않았습니다. 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— 요강에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.

그래서 이 편은 가르는 법을 다룹니다. 숫자보다 그게 필요한 자리입니다.

출처: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6,482줄에서 학과 이름의 낱말로 저희가 집계. **이름으로 센 것이라 실제 성격은 학과마다 다릅니다.**

02 · 무엇이 다른가

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

어떤 곳	무엇이 달라졌나	어떻게 알아보나
이름만 바꾼 곳	기존 학과의 이름을 고쳤습니다	교육과정이 예전과 거의 같습니다
안에서 나뉜 곳	기존 학부 안에 전공을 새로 뒀습니다	교수와 시설을 나눠 씁니다
새로 만든 곳	정원과 교원이 늘었습니다	새 교수·새 시설·기업 협약

셋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. 이름만 바꾼 곳도 원래 교육과정이 좋으면 좋은 학과입니다. 다만 「새로 생겼으니 뭔가 다르겠지」로 기대하면 어긋납니다.

왜 이름을 바꾸나

지원자가 모이기 때문입니다. 이걸 대학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— 학생이 그 이름을 보고 오니 학교가 그렇게 답한 것입니다.

그리고 정부 사업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첨단 분야로 정원을 늘려 주거나 예산을 붙여 주는 사업이 있어서, **거기에 맞춰 이름과 편제를 고칩니다.** 이 경우는 **실제로 돈과 교원이 들어온 것이라** 결이 다릅니다.

지원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입니다

「내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.」 이름이 아니라 **교육과정**입니다. 그리고 교육과정은 **공개되어 있습니다.** 다음 면에서 보는 법을 드리겠습니다.

갈래 나눔은 저희가 요강과 대학 공시를 살피 정리한 것입니다. 공식 분류가 아니며, 한 학과가 둘에 걸치기도 합니다.

03 · 가르는 법

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

Q. 하나 — 교육과정 편제표

가장 정확합니다. 대학 홈페이지의 학과 페이지에 대개 있습니다. 「교육과정」·「커리큘럼」으로 찾으시면 나옵니다.

보실 것은 전공 과목의 이름입니다. 반도체학과인데 과목이 전자공학과와 거의 같다면 이름을 바꾼 쪽에 가깝습니다. 공정·소자·설계처럼 그 분야의 과목이 여럿 있으면 실제로 짜인 것입니다.

한 시간이면 읽으십니다. 그리고 4년 동안 그 표대로 배웁니다.

Q. 둘 — 언제 생겼나

요강에 「신설」이라고 적혀 있거나, 학과 홈페이지에 연혁이 있습니다.

올해 처음 뽑는 학과는 참고할 입결이 없습니다. 선배도 없고 교육과정도 아직 다 안 돌았습니다.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「모르는 것이 많다」는 뜻입니다.

반대로 오래된 학과가 이름만 바꾼 경우는 입결과 진로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. 알아보기 쉬운 쪽입니다.

Q. 셋 — 교원이 몇 명인가

대학알리미에 전임교원 수가 공시됩니다. 학과 홈페이지의 교수 소개를 세어 보셔도 됩니다.

정원은 큰데 전임교원이 적으면 다른 과 교수가 와서 가르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. 그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, 「그 분야를 전공한 교수에게 배우는가」는 달라집니다.

교수의 전공 분야도 보십시오. 반도체학과인데 교수 전공이 대부분 다른 분야면 그것이 답입니다.

Q. 넷 — 기업과 무엇이 걸려 있나

협약·계약이 있는지를 봅니다. 있으면 학과 홈페이지에 크게 적혀 있습니다.

다만 「협약」과 「채용 보장」은 다릅니다. 장학금만 주는 협약도 있고, 인턴만 주는 협약도 있습니다. 무엇을 주는 협약인지를 확인하십시오 — 다음다음 편에서 자세히 다룹니다.

넷 다 대학이 공개한 자료로 확인됩니다. 돈이 들지 않습니다.

출처: 대학알리미 공시 및 각 대학 학과 안내. 확인 방법은 저희 판단이며, 학과마다 공개 범위가 다릅니다.

04 · 그래서 무엇을

고르는 차례와 점검표

차례	무엇을	왜
1	교육과정을 읽습니다	4년 동안 배울 것입니다
2	언제 생겼는지 봅니다	참고할 자료가 있는지 갑니다
3	교원을 세어 봅니다	누가 가르치는가
4	그다음에 합격선을 봅니다	여기서부터가 성적 이야기입니다

4번을 마지막에 둔 까닭이 있습니다. 첨단학과는 새로 생긴 곳이 많아 입결이 없거나 한 해뿐입니다. 앞서 보셨듯 한 해 숫자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. 그러니 합격선보다 교육과정이 더 믿을 만한 자료인 자리입니다.

수능최저를 함께 보십시오

첨단학과의 45%가 수능최저를 겁니다. 전체 수시 평균(46%)과 비슷합니다. 「새 학과라 문이 험겅겅지」가 성립하지 않습니다.

첨단학과를 볼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

- ☐ 교육과정 편제표 를 직접 읽어 보았는가
- ☐ 전공 과목이 그 분야의 것 인가 — 기존 학과와 거의 같지 않은가
- ☐ 언제 생긴 학과인가
- ☐ 참고할 입결이 몇 해치 있는가
- ☐ 전임교원 이 몇 명인가 · 전공이 그 분야인가
- ☐ 기업 협약이 있다면 무엇을 주는 협약인가
- ☐ 수능최저 가 걸려 있는가
- ☐ 이 학과를 이름이 아니라 교육과정으로 고르고 있는가

마지막 항목이 이 자료의 전부입니다. 이름은 바뀔 수 있고, 교육과정은 4년을 정합니다.

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

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「첨단학과가 유망하다」는 말을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. 4년 뒤 취업 시장이 어떨지 저희는 모르고, 안다고 하는 쪽은 지어내는 것입니다.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— 그 학과에서 4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가. 그건 편제표에 적혀 있고 한 시간이면 읽으십니다. 유망하다는 말보다 그 한 시간이 정확합니다.

05 · 자주 묻는 것

첨단학과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

Q. 신설 학과는 피하는 게 좋은가요?

단정할 수 없습니다. 얻는 것과 잃는 것이 있습니다.

잃는 것 — 참고할 입결이 없습니다. 선배가 없어 진로 정보도 없습니다. 교육과정이 **돌면서 바뀔** 수 있습니다.

얻는 것 — 새 학과는 **학교가 힘을 쓰는 자리**인 경우가 많습니다. 시설과 장학금이 불기도 합니다. 그리고 **지원자도 정보가 없어 몰리지 않는** 해가 있습니다.

판단 기준을 하나 드리면 — **왜 만들었는지**가 보이는가입니다. 정부 사업이나 기업 협약처럼 **까닭이 뚜렷하면** 뒷받침이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. 까닭이 안 보이면 **이름만 바꾼** 쪽일 수 있습니다.

Q. 반도체학과를 나오면 반도체 회사에 가나요?

학과가 진로를 정하지는 않습니다. 전자공학과를 나와 반도체 회사에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— 정원이 크기 때문입니다.

학과 이름이 좁으면 **얻는 것과 잃는 것**이 같이 옵니다. 그 분야를 깊게 배우는 대신 **다른 길로 돌릴 때** 「이 학과는 그것만 배웠나」로 보일 수 있습니다.

그래서 **이름이 넓은 학과(전자·컴퓨터)**와 **좁은 학과(반도체·AI)**는 성격이 다른 선택입니다. 어느 쪽이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.

다만 **18살에 진로를 좁게 정하는 것이 늘 이득은 아니라는 점**은 말씀드립니다. 넓게 배우고 나중에 좁히는 길도 있습니다.

한 줄로 남기면

첨단학과는 **이름이 아니라 편제표로** 고르는 것입니다. **4년 동안 무엇을 배우는지**가 유망하다는 말보다 확실합니다.

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과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. 집계는 학과 이름의 낱말로 센 것이라 **실제 성격은 학과마다** 다릅니다. 개별 대학·학과 합격선은 실지 않으며, 취업 전망을 예측하지 않습니다.